

# ‘배팅볼급 투수→불펜 포식자’ KIA 장현식 “즐겁고 행복”

지난해 이적 후 평균자책 11.20 투수서 거듭나  
“던지는 순간 타자와의 승부만 집중하자 생각”

KIA 타이거즈 우완 장현식(26)이 즐겁고 행복한 날들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이적 후 거의 배팅볼급 투수였다. 그러나 해가 바뀌자 불펜의 포식자로 거듭났다. 극적인 변신으로 KIA 불펜의 기둥이 되었다. 투수로서 전성기를 맞이한, 거의 마무리급 필승맨이다. 장현식은 지난 4월29일 한화 이글스와의 광주경기에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2-2로 팽팽한 8회 마운드에 올랐다. 단 1볼넷만 내

주고 4탈삼진을 곁들여 2이닝을 완벽하게 지켰다. 구위가 장난이 아니었다. 직구 구속이 153km까지 올라왔고 슬라이더의 궤적이 훨씬 날카로워졌다. 포크까지 구사하면서 타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마치 마운드의 포식자처럼 타자들을 잡아냈다. 1세이브3홀드(1패), ERA 2.30을 기록 중이다. 최근 10경기는 0.73에 불과하다. 벌써 14경기째 등판이다. 팀의 22

경기 가운데 64%나 등판했다. 3경기 가운데 2경기엔 마운드에 오르는 꼴이다. 시즌 초반 너무 많은 등판을 해 팬들의 걱정이 크다. 그러나 타선 침묵으로 연장전만 6번을 치르는 등 접전 상황이 이어지는 통에 오르지 않을 수도 없다. 작년보다 월등하게 좋아진 비결은 무엇일까? 힘을 뺐기 때문이었다. 장현식은 경기 후 “오늘 경기도 평소와 다름 없이 힘 빼고, 던지는 순간 타자와의 승부만 집중하자는 생각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던지는 폼이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장현식은 이어 “이전에는 투구시

일찌감치 힘을 쓰는 경향이 있었다. 때문에 구속과 구위가 모두 좋지 않았다. 올 시즌에는 코치님들의 조언에 따라 릴리스 포인트에 힘을 쓰고 있다. 그러다보니 구위와 구속 모두 좋아진 것 같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작년 이적 후 11.2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해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제는 다르다. 없어서는 안되는 필승맨이 되었다. 선발이 아니어도 즐겁다. “스프링캠프에서 선발투수를 준비했기에 시즌 초반까지 욕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팀에 도움이 되어 너무 행복하다. 지금 주어진 보직에 맞게 운동하고,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코칭스태프와 트레너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시즌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 양현중, 드디어 ‘꿈 이뤘다’

6일 미네소타전 선발등판

양현중(33·텍사스 레인저스)이 메이저리그 선발투수로 올라가는 꿈을 이뤘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닷컴은 3일(한국시간) “텍사스가 6일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에 양현중을 선발로 내보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당초 일본인 투수 아리하라 고헤이의 선발 등판이 예상됐다. 그러나 아리하라가 오른쪽 손가락 부상을 당하면서 양현중이 기회를 잡았다. 양현중은 메이저리그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했다. 텍사스 스키투에 포함됐던 양현중은 지난달 27일 LA 에인절스전에서 4⅓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고, 지난 1일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 4⅓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은 최근 양현중의 선발 등판을 예고했고, 아리하라가 다치자 양현중을 올렸다. 양현중은 실력으로 마이너리그의 역경을 헤쳐나온 것이다.



양현중은 전날 화상 인터뷰에서 “당연히 선발 등판 기회가 온다면 좋겠지만, 내 임무는 팀이 힘들 때 보탬이 되는 것이다. 코치진에서 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미네소타는 2일 현재 10승 16패를 기록해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4위를 달리고 있다.



## 박현경, KLPGA 챔피언십 2년 연속 우승

박현경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이저대회 크리스 F&C KLPGA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에서 2년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박현경은 2일 영암군의 사우스링스 영암 카일필립스 코스(파72·6532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2개로 2타를 줄여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우승했다. 공동 2위 김우정과 김지영(이상 9언더파 279타)을 한 타 차이로 따돌렸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통산 첫 우승을 차지한 박현경은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1978년부터 열린 이 대회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건 1982년 고 구옥희 이후 39년 만이다. 구옥희는 1980년부터 1982년까지 3년 연속 정상을 올렸다. 또 역대 7번째로 이 대회 다승자가 됐다. 앞서 구옥희(3승), 강춘자(2승),

김순미(3승), 고우순(4승), 배경은(2승), 신지애(2승)이 2회 이상 우승을 차지했다. 박현경은 통산 3승째다. 박현경은 “시즌 첫 승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서 얼떨떨하다. 이렇게 역사가 깊은 대회에서 2연패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선물 같다”며 “타이를 방어할 성공한 내 자신에게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통산 3승째를 거뒀는데 공교롭게 모두 역전 우승이다. 이에 대해선 “원동력이라기보다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골프는 18홀이 끝날 때까지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한다. 2타 차는 한 홀에서도 뒤질 수 있기 때문에 매 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 나올 것이라고 자신 있게만 치자는 마음으로 항상 임했던 것 같다”고 했다.

## 손흥민, 한 시즌 개인 최다골 타이...두 시즌 연속 10-10 클럽

도움 이어 시즌 21호골까지  
토트넘, 셰필드에 4-0 대승  
4위 첼시와 5점차 5위 도약

‘손세이셔널’ 손흥민(29·토트넘)이 한 시즌 개인 최다골 타이 기록과 함께 두 시즌 연속 10-10 클럽에 가입했다. 손흥민은 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34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뛰며 1골 1도움을 기록, 토트넘의 4-0 대승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팀이 1-0으로 앞선 후반 16분 역습 찬스에서 정확한 패스로 가레스 베일의 추가골을 도왔다. 리그 10번째 도움을 추가한 손흥민은 토트넘 소속 선수로는 최초로 두 시즌 연속 10골과 10개 도움 이상을 기록하며 또 한 번 10-10 클럽에 가입했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 10-10 클럽에 가입한 선수는 1994~1995시즌 윌트킨 클린스만(20골 10도움), 2011~2012시즌 엠마누엘 아데바요르(17골 11도움), 2017~2018시즌 크리스티안 에릭센(10골 10도움)과 지난 시즌 손흥민(11골 10도움) 뿐이었다. 올 시즌 EPL에선 팀 동료 해리 케인(21골 13도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브루노 페르난데스(16골 11도움)에 이어 세 번째다.



또 후반 32분에는 직접 해결사로 나섰다. 상대 페널티박스 외곽에서 오른발 감아차기 슈트로 팀의 네 번째 골을 터트렸다. 정규리그 16호골이자 시즌 21번째 득점으로 2016~2017시즌 자신이 세웠던 한 시즌 개인 최다골과 동률을 이뤘다. 손흥민은 EPL 16골, 리그컵(카라바오컵) 1골,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4골(예선 1골 포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축구 전설 차범근이 1985~1986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기록한 정규리그 최다골

(17골)에도 한 골 차로 다가갔다. 한국인 유럽 리그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이다. 토트넘은 헤트트릭을 달성한 베일의 활약으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서 임대로 친정팀 토트넘에 복귀한 베일은 전반 36분 선제골을 시작으로 후반 16분, 24분 연속 득점으로 헤트트릭을 완성했다. 토트넘에서 EPL 9골(2도움)이자, 공식전 14골(3도움)이다. 손흥민은 후반 5분 골키퍼와 일대일 찬스에서 상대 골망을 흔들었지만, 비디오판독(VAR) 결과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득점이 취소됐다.

하지만 후반 16분 베일의 추가골을 도우며 득점 취소의 아쉬움을 털어낸 데 이어 후반 31분에는 스테phen 베르베인의 패스를 받은 뒤 강력한 오른발 슈트로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빅4 진입 희망을 이어갔다. 조세 무리뉴 감독이 떠난 뒤 임시 지휘봉을 잡은 라이언 메이슨 감독대행 체제에서 정규리그 2연승을 달리며 승점 56점으로 5위가 됐다.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 마지노선인 4위 첼시(승점 61)와는 승점 5점 차다. 뉴시스

## ‘선발전 안정’ 삼성·KT, 거침없는 상승세 이어갈까

엘리트는 연패 탈출 절실

4월 3일 개막한 KBO리그가 한 달 내내 혼전을 거듭한 가운데 삼성 라이온즈와 KT 위즈가 지난달 말 가파른 상승세를 자랑하며 선두권을 형성했다. 3일 현재 삼성은 16승 10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KT 위즈는 15승 10패를 기록하며 경기 차로 뒤진 2위다. 공동 3위인 두산 베어스, LG 트윈스, SSG 랜더스(이상 13승 12패)와 1위 삼성의 격차는 2.5경기 차다. 삼성과 KT는 나란히 지난주 치른 6경기에서 5승 1패를 거뒀다. 삼성은 지난 주말 LG와의 3연전을 싸늘이했고, KT도 KIA 타이거즈와의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해 4연승을 질주했다. 삼성과 KT가 상승세를 뽐낼 수 있는 원동력은 마운드에 있었다. 지난주 KT의 평균자책점은 2.38로 가장 낮았다. 삼성이 3.00으로 주간 평



군자책점 2위였다. 시즌 전체로 넓혀봐도 삼성이 3.59로 팀 평균자책점 선두를 질주 중이고, KT가 3.78로 2위에 올라있다. 두 팀 모두 선발진이 안정적이다. 팀 선발 평균자책점 부문에서 삼성이 3.25, KT가 3.60으로 1, 2위다. 삼성은 외국인 에이스 데이비드 뷰캐넌이 4승 1패 평균자책점 1.86으로 기대만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프로 3년차 우완 원태인이 토종 에이스 노릇을 톡톡히 하며 원투펀치를 이루고 있다. 원태인은 올 시즌 5경기에서 4승 1패 평균자책점 1.16으로

빠어난 투구를 선보이고 있다. 뷰캐넌과 원태인은 다승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원태인은 평균자책점 부문에서도 1위에 올라있다. 시즌 초반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삼성의 또 다른 외국인 투수 벤 라이블리는 지난달 28일 대구 NCD아인노스전에서 6이닝 1실점을 기록하는 등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백정현도 2승 3패 평균자책점 3.81로 무난하다. KT는 외국인 에이스 오드리사머데스파이네가 3승 2패 평균자책점 2.15를 기록하며 선발진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부상으로 합류가 늦어질 윌

리엄 쿠에바스도 정상 궤도를 찾아가는 중이다. 토종 선발진도 든든하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고영표가 3승 1패 평균자책점 3.48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배제성도 2승 2패 평균자책점 3.76으로 꾸준하다. 프로 2년 차 소형준은 구위가 떨어질 모습을 보여 한 차례 1군 엔트리에서 빠졌지만, 4월 29일 인천 SSG전에서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부활을 알렸다. 반면 ‘엘리트’로 불리는 LG와 롯데, KIA는 연패 탈출이 절실하다. LG는 3연패 중이고, 롯데는 지난 주말 한화와의 홈 3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4연패에 빠져 최하위까지 추락했다. KIA도 KT 연승의 제물이 됐다. 세 팀 모두 타선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주 주간 팀 타율에서 LG가 0.220으로 8위, 롯데가 0.216으로 9위, KIA가 0.199로 10위였다. 한편 4일 열릴 예정이었던 5경기는 모두 취소됐다.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예비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들의 백신 접종 여파다.